

2023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축하

이번에 학사모를 쓰게 된 학부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땀 흘려 배우고 익혀온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오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직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해 오신 동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은 학부 8,347명, 대학원 425명입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분 중에는 스무 살의 아주 젊은 학우도 있고 1939년생으로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학우님도 계십니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 중증장애인 등 매우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적인 여건 등을 생각하면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까지 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한계를 긋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한계에 대한 도전과 한계의 극복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계를 긋는 것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견한 것은 남을 이기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우리 대학의 울타리를 떠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당당한 방송대인’으로 살아가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당당하려면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에서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방송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방송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함께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의 졸업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이룬 성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취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졸업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어가야 할 공부에서 하나의 매듭을 짓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을 다니는 동안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을 다니는 동안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보다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의 선생님, 여러분들의 선배, 그리고 우리 대학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우리 대학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졸업을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문 선배들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언제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성원해 주시고 우리 방송대에서의 생활을 가슴으로 기억하는 동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행운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고성환